

12월13일(월)/고전 6:1~11

제목: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생긴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는 교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였다(1절). 교인은 왜 이런 일을 해서 안 되는가? 교인은 즉,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까지도 심판할 권능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이다(2~3절).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 문제라는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권능과 특권을 가진 백성인데 어떻게 교회가 경이 여기는 불의한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4절).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하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차라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바울은 다소 짜증섞인 어투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5절)고 질문하였다. 만일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해결 해줄만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라고 한다(7절).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인 재판정으로 가는 곳보다 낫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인끼리 생긴 분쟁에 대해서 판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 내 사건이 터지면 항상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월14일(화)/고전 6:12~20

제목: 성도의 몸은 놀라운 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12절) 라는 말의 문맥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익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는 문제를 예를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육도 주셨고 위장도 주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다(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음행을 저 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13절). 몸은 음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며 그분의 몸의 일부이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지체를 창녀와 한 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15~16절).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몸이기에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19~20절). 성도의 몸은 위대한 것이며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몸을 창녀가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12월15일(수)/고전4:14~21

제목: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권한다고 하였다(14절). 그는 그동안 너무나 강한 어조로 고린도교인을 책망했던 것이 자기 개인의 분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편지 내용들은 스승으로써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한다고 하였다(15절). 그는 고린도교인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부디 모든 일에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지기를 원했다(16절).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엄격한 질문을 던지면서 성도와 교회지도자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마친다. 바울은 자기가 곧 고린도에 도착할 텐데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를 그들에게 물었다(21절)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목회자를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이르면 자기가 온유함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다(21절).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다. 진짜 부모라면 아이의 기를 죽여서 억지로 급실급실하게 만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잘못을 항상 자발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라’

12월16일(목)/고전7:1~7

제목: 그리스도인의 결혼관(1)

남편은 아내에 대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아내 역시도 그러하다. 부부는 언제나 같이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4절). 부부는 영육 양면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항상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신앙적인 수양을 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잠시 예외가 된다. 부부가 얼마동안 온전히 기도에만 전념해야 할 경우에는 육체적인 일을 일정기간동안 피하는 것이 좋다(5절). 그러나 그것도 부부가 합의해서 해야 하며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5절).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결혼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자기처럼 가정을 가지지 않기를 권면하는 듯 보인다(7절).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이었다(행26:10). 산헤드린 회원은 반드시 기혼자여야 한다. 바울이 왜 홀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혼과는 담을 쌓고 재혼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가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처럼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울의 소원은 결혼이나 재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만큼 미치라는 뜻이다. 크리스찬은 결혼보다 예수님을 중시해야 한다.

12월17일(금)/고전7:8~24 (1)

제목: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미혼자나 과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야 한다(8절). 기혼자는 이혼을 하면 안되지만 이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지 말고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을 시도해야 한다(10~11절).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밝힌 후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해서 말하였다(12절). 만약에 신자와 불신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불신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결코 그를 버려서는 안된다(12~13절). 그러나 바울은 불신자인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였다(15절)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다면 갈리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불신자인 한쪽이 이단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 당시 고린도교인 중에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 진다는 아름다운 사상을 가지고 있다(14절, 16절). 이 말이 중요하다. 불신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영똥한 길로 간다 해도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도 언젠가는 거룩하여진다. 우리는 이 말을 붙들어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